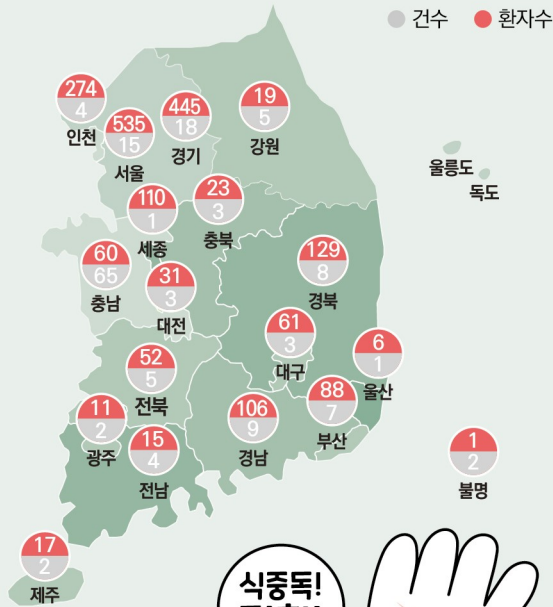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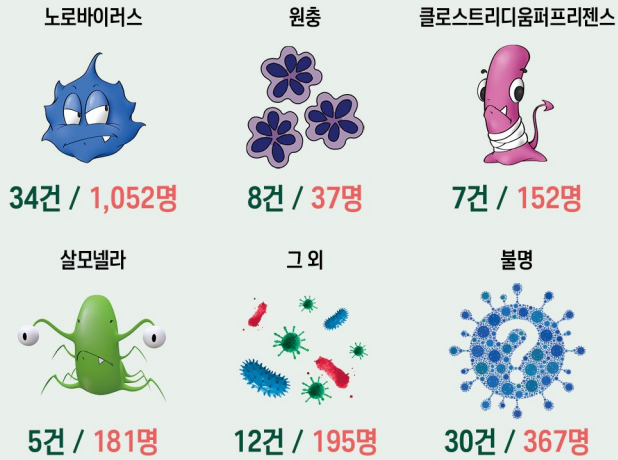


식중독 발생지역 현황 (17~21년 3월 합)



식중독 원인균 현황 (17~21년 3월 합)



식중독 발생시설 현황 (17~21년 3월 합)



3월 식중독 주의 정보

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 주의



봄철 가정 및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주의

-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조리 식품의 상온 방치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
- 기상청 날씨 전망: 올해 3월의 평균기온은 예년 비해 50% 높을 확률 (올해 2월 이상고온으로 낮기온이 15°C를 초과)

- 1 음식은 먹을만큼 소량 조리하여 2시간 내 섭취 완료
- 2 대량조리 시 중심온도에서 75°C(아패류 85°C) 1분이상 충분히 가열하고, 작게 소분하여 가급적 빨리 식혀 냉장보관
- 3 보관 시 적온(냉장 5°C 이하 또는 보온 60°C 이상) 보관



개학기 급식시설에서의 식중독 주의

- 학교, 어린이집 등 개학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시설내 감염병과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기 시작함

- 1 급식 개시 1~2일 전 급식시설 청소 및 소독 실시
- 2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기구 등 세척·소독 철저
- 3 식재료 소비기한(유통기한) 확인 및 검수 철저
- 4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고,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리배제
※ 감염에서 회복된 후에도 최소 2일 이내 조리작업 금지
- 5 (식중독 발생 시) 가열 조리 식단으로 구성하며, 조리 시 중심 온도 85°C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
- 6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작업도구, 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이용하여 살균·소독